



동방경제포럼 소식

- 동방경제포럼 계기로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 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극동의 거리’ 전시회를 개막했다. 관람객들은 1300미터의 해안가에서 9개 극동 지역의 문화, 전통, 경제적 잠재성을 만나볼 수 있다. (리아 노보스티)
- 극동연방대학교와 캄차카 지방이 2018-동방경제포럼 행사 중 처음으로 양해각서 서명 행사를 가졌다. 일류힌 캄카카 지방 지사와 아니시모프 극동연방대학교 총장은 루스키섬 테크노파크 프로그램 공동이행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타스통신)
-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두 개의 스포츠 관련 전체 회의가 열린다. ‘오늘의 세계 스포츠, 2020-도쿄 올림픽과 2022-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시각’ 회의에는 러 체육부 장관, 고우 촌벤 중국 올림픽 조직위 위원장과 창 유이 북경-2022 조직위 커뮤니케이션 담당 대표가 참석한다. (이즈베스티야)
- 동방경제포럼 스포츠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된 2018-극동 습선 레가타 대회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 행사가 아태지역 국가간 인적 교류 발전을 도모한다고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크렘린 공식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리아 노보스티)

- 동방경제포럼 자선경매 행사는 극동에 서식하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극동 관구 10개 특별보호구역 여행권이 경매품으로 나온다. 이외에도 VTB 단일리그 농구대회 올스타전 티켓, 북극 학술탐사 참여권, 남아프리카 공화국 Sonny 화가의 싸인이 들어간 2점의 그림 등 여러 상품들이 경매로 나온다. 이 행사는 러시아 환경부 전시부스에서 진행된다. (타스통신)
- 동방경제포럼 전날 연해주 해안에는 대형 크루즈 선박인 Costa NeoRomantica가 정박했다. 이 배는 며칠 동안 동방경제포럼 손님들을 위한 호텔로 쓰여질 것이다. 국내외 포럼 방문객들을 위해서 약 750개의 선박 객실이 제공된다. (타스통신)

극동 소식

- 극동에서 처음으로 LNG생산 소형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 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극동의 거리' 개막 행사에서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서 사할린에 위치한 이 공장의 가동을 알렸다.
- 극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은 지역 전체 투자액의 7%를 차지하며, 중국은 극동지역의 주요 교역국이라고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 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리아 노보스티)
- '소형 선박 건조' 연해주 조선소가 한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최초의 모터 카타마란을 선보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업체인 이 회사는 2000년부터 연해주에서 선체에 복합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선급의 카타마란을 생산해 오고 있다.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www.roscongress.org